



나누고 베푸는 예술철학,

흐르는 음악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세상에 스며들다

유중재단 · 유중아트센터 정승우 이사장

예술가들의 꿈과 재능이 영그는 모태이자, 관객들이 문화예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서 유중아트센터는 설립 취지를 충실히 지키며 그 본분을 다해왔다.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과 활동을 묵묵
히 후원하며 대중에게 예술로 충만한 일상을 선물하는 그 점점에는 바로 유중아트센터의 정승우 이사장
이 있다.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겸허하게 더욱 큰 뜻을 품고 전진하는 그를 만났다.

글 김연정 / 사진 이준용 / 촬영협조 유중아트센터(02.536.1108), 김태연 작가 개인전 <내부를 바라보는 시선>, 김민정 작가 개인전 <기억의 건축>

✧ 고결한 가르침, 삶의 원동력이 되다 ✧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넓은 식견과 덕목을 갖추면서도 문화를 아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해질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 어렵게 공부하던 학생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그의 외증조부는 그에게 자주 인재 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시곤 했다. 선견지명이 담긴 외증조부의 말씀은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그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한 근본적 뼈대가 됐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작고하셨는데 임종을 저 홀로 지켰어요. 비록 할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을 배웅해드리긴 했지만, 실향민이셨던 할아버지를 위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못내 송구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제게 있어서 유중아트센터는 할아버지께 바치는 집과 같아요. 이곳을 더없이 신성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완전무결한 공간으로 남기려 하는 것은 할아버지께서 늘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외증조부의 유지를 받들어 지덕체(智德體) 삼위일체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외증조부의 호인  ‘유중’을 따서 재단과 아트센터 설립하게 된 것은 그의 말처럼 단순한 계기나, 즉흥적인 생각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외증조부의 남다른 가치관에 크게 영향받은 그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며 예술적 소양을 쌓았다. 미국에서 보낸 중·고등학교 유학 시절에는 악기 연주를 하며 타지에서 외로움을 이겨냈을 정도로, 음악은 그의 오랜 벗이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대기업에서 근무한 이력만 두고 보면, 예술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예술 애호가로 살아온 셈이다. “삼미재단 근무 시절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와 희귀난치병 아동을 돕는 복지사업을 맡아 진행했는데 그때 느낀 바가 참 많았어요. 사회 곳곳에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면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겠다고 절감했어요. 이후 대우조선해양 계약관리실과 감사실에 재직할 때는 거제도의 외국인 선주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옥포외국인학교 관리를



담당하며 학교 운영의 경험을 쌓았고요.” 조금은 막연했던 꿈이 경험으로 채워지면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됐지만,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재단을 설립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처음에 이 구상을 이야기했을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센터가 설립된 뒤에도 응원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더 많았어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혼자서 고생을 많이 했죠.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설계 및 건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가 도맡아 했기에 곳곳마다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애착이 큼니다. 제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했겠죠.”



✧ 대중과 예술가를 위한 열린 소통의 장을 만든다 ✧

2011년 11월 1일 개관한 유중아트센터는 얼핏 외관만 보면 여느 건물과 다를 바 없는 듯해도,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그 진가가 빛을 발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아트센터다운 면모를 더 화려하게 갖추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리어 반문해요. 어떤 공연과 전시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열리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필요 이상의 겉치레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외관이 지나치게 화려하면 위화감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대중들이 이곳을 찾았을 때 음악 선율이 흐르고 있고, 평온한 가운데 작품 감상도 할 수 있는 풍경을 줄곧 머릿속에 그려왔거든요. 거부감 없이 자주 접하다 보면, 자연스



럽게 문화생활에 친숙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곳이 메이저급 공연장이나 미술관까지도 찾고 싶어지게끔 하는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이처럼 공간에 ‘

아늑한 쉼터’라는 개념을 대입, 센터 곳곳에서 삼림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힐링 스페이스’를 표방하고, 나아가 다양한 기획공연을 선보이며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중과 예술가가 소통할 수 있는 170석 규모의 ‘유중아트홀’과 ‘유중갤러리’는 물론이고, 예술가들이 최적의 시설에서 그들의 기량을 마음껏 연마할 수 있도록 1개의 체임버 연습실, 7개의 개인 연습실을 갖춘 ‘유중뮤직스튜디오’와 신진작가를 위한 7개의 개인 작업실을 갖춘 ‘창작스튜디오’를 함께 배치해 넣은 것은 그의 혜안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술은 자연현상을 기록하고, 모방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음악과 미술의 표현방식은 비록 다를지언정,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원류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주로 다원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음악이 그림에 영향을 주든, 그림이 음악에 영감을 주든지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된 성과의 열매는 지난해 공개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미술과 음악의 창의적인 만남’을 주제로, 창작스튜디오의 입주 작가 7명과 뮤직스튜디오의 상주 연주자 3명이 만나 완성된 프로젝트 ‘Rhythm + Hues’는 실험적인 협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처럼 그는 확고한 신념하에 이웃 장르 간의 통섭과 융합을 시도함으로써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대중들이 다채로운 예술의 매력에 매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가 센터를 건립할 때만 해도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약했어요. 진정한 복합문화공간은 적어도 굳건한 설립이념과 운영철학을 지니고,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는 있어도 그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전시성 이벤트로 그칠 뿐이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야죠.”

지속 가능한 발전상을 염두에 둔 그는 국내 예술계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 인재 발굴과 양성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2년 ‘유중 라이징스타 오디션’을 시작으로 엄격한 심사에 의해 선발된 인재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뮤직스튜디오 이용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꾸준히 배출해냈다. 어느덧 4회째를 맞이한 ‘2015 라이징스타 오디션’ 및 작년부터 새로이 추진된 ‘프로디지^{영재}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프로디지 10인과 라이징스타 12인의 연주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유중아트센터에서 공개되고 있어 청중들에게 새로운 별의 탄생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국내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리드하다 🌸

비영리 공익재단으로서 그의 사재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인 만큼 운영상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재단의 지원으로 인해 비범한 아티스트로 성장해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고충을 말끔히 잊는다. 아티스트들을 말없이 후원하면서도 관객석에 앉아 박수를 보내며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공연이 끝나고, 연주자와 부모님이 오셔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실 때 제일 뿌듯합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티스트는 그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 그만큼 아티스트 선발과정도 꼼꼼하고, 까다롭다. “대기업이 많은 이들에게 큰 금액의 비용을 후원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소정의 혜택을 소수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셈인데 그만큼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쓰였으면 해요. 저희가 입주 작가와 상주 연주자를 선발할 때 실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성이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슬부슬 내리는 비라 할지라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후원이라는 혜택을 혼자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타인에게 되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지난 성과를 뒤로하고, 더 나은 재단의 미래를 위해 줄곧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왔다. 바쁜 나날들 가운데 한예종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을 수료하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재단 임원진을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들로 영입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백지상태에서 출발해 지난 5년간 쏟아부은 노력은 놀라운 성공의 결실로 이어졌지만, 그가 구상한 꿈의 지도는 아직 미완성이다.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재단을 창설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예술대학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한 충북 단양에 건설 중인 유중아트리움이 완공되면, 아트캠프와 국제예술제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염원했던 바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으며 예술가들이 오롯이 자신의 예술세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루터기를 만들고, 인재 양성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지난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국내를 대표하는 비영리공익재단으로서 향후 한국문화예술계의 발전을 리드해갈 그 찬란한 미래상을 기대해본다. *mf* 🦋